

### MBN 예능 '국대는 국대다' 내달 첫선

**스포츠 스타 vs 현역 국대 대결**  
**'탁구 전설' 현정화 출연 눈길**

스포츠 스타가 현역 국가대표와 세기의 대결을 펼치는 스포츠 예능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MBN은 새 예능 '국대는 국대다'를 다음달 첫 방송한다.

제작진은 "스포츠에 일생을 바쳤던 역대급 '레전드'들을 경기장으로 소환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캐스팅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이들의 현재 실력과 명성부를 펼치는 스포츠 예능이다."

첫 주인공은 금메달만 무려 75개 획득

하고, 대한민국 유일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전 탁구 선수 현정화다.

27년 만에 선수(?)로 코트에 복귀하게 된 현정화는 현역 국가대표와의 경기를 위해 지난 60일간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 비장하게 경기에 임한 현정화가 전성기 시절을 능가하는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제작진은 "스포츠에 일생을 바쳤던 역대급 '레전드'들을 경기장으로 소환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캐스팅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이들의 현재 실력과 명성부를 펼치는 스포츠 예능이다."

첫 주인공은 금메달만 무려 75개 획득

/연합뉴스



"나만의 장르로 기억되길"

**문별, 미니 3집 '시퀀스' 발매**  
**아이키, 타이틀 곡 안무 참여**

행복했던 나날, 권태기, 이별, 헤어진 뒤 느끼는 미련의 감정 등을 한 편의 단편 영화처럼 몰 흐르듯 자연스럽게 담아내고자 고민을 거듭했다.

문별은 "사랑은 모두에게 가깝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야기를 풀면서 곡 내용이 앨범 안에서 이어졌으면 했다. 감정선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루나틱'(LUNATIC)은 일곱 트랙의 한 가운데에 있다.

문별은 권태기에 놓인 연인이 느낄 법한 복잡한 감정을 하우스 장르의 리듬과 멜로디로 표현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 이름을 알린 댄스 크루 '훅'(HOOK)과 리더 아이키가 안무에 참여했다.

문별은 새해 소망으로 "많은 분이 새 앨범을 사랑해주면 그것 이상의 소원이 없지 않을까"라며 "(음원) 차트의 장벽을 깨기 힘들지만 50위 안, 더 나아가 1위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비유했다.

문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면 빨리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문별의 음악 장르는 그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오직 문별만 할 수 있는 음악,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연합뉴스



'소년 심판' /넷플릭스 제공

## 넷플릭스, 한국 작품 대폭 늘렸다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판 '종이의 집', 연상호 감독의 '정리' 등 한국작품 25편 이상을 공개한다.

넷플릭스는 19일 올 한해 선보일 예정인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작품 라인업을 소개했다. 지난해보다 10편 늘어난 25편이 공개 예정작으로 확정됐다.

올해 선보일 작품들은 김혜수를 비롯해 김희선, 하정우, 유아인, 황정민, 설경구, 유지태 등 국내 최고 스타들의 출연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올해 첫 시리즈는 이달 28일 공개되는 확연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이다.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민보배' (민고 보는 배우)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들도 있다.

실화 바탕의 마약범죄물 '수리남'은 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조우진, 유연석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남미

### 올해 25편 공개 예정...영화·예능 다채 한국판 '종이의 집'·'소년 심판' 주목

의 한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 사업가의 목숨을 건 여정을 따라간다.

김혜수 주연의 시리즈 '소년 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휴먼 법정 드라마다. 위협 수위에 도달한 청소년 범죄와 이를 방임하는 사회를 향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으로 김혜수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예리한 과 냉철함을 잃지 않는 엘리트 판사 심은석을 연기한다.

김희선은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의 최고 등급인 블랙과의 결혼을 꿈꾸며 각자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현실풍자극 '블랙의 신부'에 출연한다. 드라마는 사랑보다 조건이 우선

인 상품화된 결혼과 속물적인 현실 사회를 날카롭게 그려낼 예정이다.

스페인 인기 시리즈 '종이의 집'을 리메이크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도 기대작으로 꼽힌다.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사상 초유의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에는 유지태, 김윤진, 박해수, 전종서 등이 출연한다.

'인간수업'의 진한세 작가의 신작 '글리치'도 독특한 소재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소녀 윤아(최성은)와 미스터리 마술사 리을(지창욱)의 만남을 담은 감성 뮤지컬 드라마 '안나라수마나라', 파산과 이혼 위기에 놓인 평범한 가장 동하(정우)가 우연히 거금이 든 차량을 발견하고 마약 조직에 얽히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모범가

족'도 준비됐다.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한 영화도 막강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 '정리'는 22세기를 배경으로 전설의 용병 정리의 뇌 복제 로봇을 성공시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SF다. 1986년 '씨받이'로 한국 배우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네치아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강수연의 복귀작이다.

'아차'는 스파이들의 최대 접전지 중국 선양에서 아차로 불리는 인물과 그곳으로 특별 감찰을 나선 김사가 만나며 벌어지는 첩보 액션 영화다.

서현·이준영 주연의 로맨스 '모랄센스', 액션 대가 장병길 감독의 신작 '카타', 김유정 주연의 첫사랑 로맨스 '20세기 소녀'도 올해 공개된다.

예능으로는 셉템 파이브(김신영·송은이·신봉선·안영미)의 패이크 다크 '셀럽은 회의 중'이 있다. 네 사람의 회의 현장을 통해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내과 박원장' 이서진, 민머리 변신

#### 티빙서 매주 금요일 공개 "짠내" 통해 시청자 위로

까칠한 '도시 남자' 이미지가 강한 배우 이서진이 민머리, 그것도 짠내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코믹 캐릭터로 파격 변신했다.

이서진은 지난 1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의 요리저널 시리즈 '내과 박원장'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재미 때문에 선택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내과 박원

장'은 돈을 많이 버는 의사를 꿈꿨지만, 손님 없는 진료실에서 의술과 상술 사이를 고민하는 초보 개원의의 생존기를 그린다.

이서진은 돈 많은 명망가 꿈인 초보 내과 개원의이자 평범한 가정인 박원장 역을 맡아 데뷔 23년 만에 처음으로 코믹 연기에 도전한다.

지난 14일 미리 공개된 1·2화에서 이서진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마다 겸연쩍은 미소를 짓고, 부인 역으로 분한 라미란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파리만 날리는 진료실에 홀로 앉아 과

장된 표정으로 환자 맞을 연습을 하는 모습이나 '월급 루팡'을 꾸꾸는 베테랑 간호사 차미영(차정화 분)과 선보이는 티키타카는 마치 콩트 같은 분위기로 연출됐다.

이서 감독은 '짠내'에 연출 포인트를 뒀다고 했다.

그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수단으로 코미디를 선택했다"며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짠내를 보여주는데, 개원(프로그램) 목표는 박원장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미디어가 의사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상상공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과 충분히 닮았다"며 "박원장의 고군분투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티빙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이서진 /티빙 제공

<p><b>子</b></p> <p>48년생 지나친 걱정은 결코 이롭지 못하다. 60년생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지켜라. 72년생 막혔던 자금사정이 호전된다. 84년생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p>	<p><b>丑</b></p> <p>49년생 최소한 할 말은 하고 살자. 61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 73년생 시작이 반이다. 85년생 희망을 버리지 말라.</p>	<p><b>寅</b></p> <p>50년생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하라. 62년생 목욕하러 참고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74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86년생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p>	<p><b>卯</b></p> <p>51년생 믿는 도기에 발등 찍힌다. 63년생 의리를 지키면 보답을 받는다. 75년생 긴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87년생 역시 일처리에 마무리가 중요하다.</p>
<p><b>辰</b></p> <p>52년생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 64년생 내 앞 길에 장애물이란 없다. 76년생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88년생 드디어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p>	<p><b>巳</b></p> <p>41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라. 53년생 어설픈 행동으로 위험을 자초한다. 65년생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절대 금물이다. 77년생 멀리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p>	<p><b>午</b></p> <p>42년생 평온한 가운데 폭풍이 몰아친다. 54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6년생 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다. 78년생 오늘은 일찍 귀가하라.</p>	<p><b>未</b></p> <p>43년생 이웃과 함께 크게 웃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욕심은 적당히 부려야 한다. 67년생 망신수가 있으니 과음하지 말라. 79년생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p>
<p><b>申</b></p> <p>44년생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라. 56년생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68년생 받은 만큼 돌려줘라. 80년생 최종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p>	<p><b>酉</b></p> <p>45년생 좋은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57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 행복한 날이다. 69년생 명예와 금보화를 모두 얻는다. 81년생 숨겨둔 능력을 펼친다.</p>	<p><b>戌</b></p> <p>46년생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58년생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다. 70년생 통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82년생 사소한 문제로 다툼에 휘말린다.</p>	<p><b>亥</b></p> <p>47년생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59년생 생각보다 성과가 훨씬 좋다. 71년생 재주를 발휘하여 인정을 받는다. 83년생 지나친 고집은 삼가라.</p>